

마르 15,1-39 (2024/3/24,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는 두 가지 장면이 교차합니다. 먼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의 모습과 며칠 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군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환영한 군중과 빌라도의 총독 관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은 다른 사람들일까요? 물론 예루살렘이 작은 고을이 아니기에 성문 앞으로 나간 사람들과 총독 관저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군중 모두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번져오는 소문을 듣고 어떤 때는 “호산나!”를 어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를 외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 통신 수단의 발전으로 잘못된 정보가 더욱 쉽게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은 균형 잡힌 정보를 제시하기보다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짧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다 보니 긴 호흡을 갖고 생각해 보는 힘이 점차 약해지는데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점점 알기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된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의탁하며 삶의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성화 묵상



<안토니오 치세리, Ecce homo(자, 이 사람이오.), 1860-80년경>

총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가는 독특한 시점에서 이 장면을 표현하였습니다. 총독 관저의 테라스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가운데에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군중을 향하여 “자, 이 사람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모인 유대인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총독 부인은 도저히

이를 바라볼 수 없어 등을 돌리고 서 있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군인들은 금방이라도 소요를 일으킬 것 같은 군중을 담담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압력을 못 이기고 올바르게 많은 결정을 한일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